

3월의 기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4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마음을 다스려야 삶을 다스릴 수 있다

리처드 칼슨은 심리학자로 오랜 기간 동안 심리치료 상담을 한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가 상담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친했던 친구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결혼날짜를 잡아놓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친구를 보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빨리빨리 대신에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사십시오.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들어찬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박수 갈채를 받았지만 마음의 공허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마음의 공허와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작곡한 교향곡 9번 4악장에 새 찬송가 64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누린 기쁨을 표현한 것이 바로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이고 교향곡에 수록된 곡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은혜로 마음에 가득 채우면 어떠한 환경에도 행복과 기쁨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행복이 환경에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충만한 믿음으로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DCEM 성회안내

4월 3일, 4일 대만 타이퐁에서 “대만동부연합성회 및 교역자세미나”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성인, 김정환, 나인규, 박예림, 순복음정릉교회, 안희순, 오주봉, 오현주, 이규현, 이형춘, 임철규, 원소선, 정경자, 정낙숙, 조중숙 목사, 최인철, 한태성, 함석숙, Esther Han, Mafoue Mike Arnaud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2014년 DCEM 해외 성회 예정지 이모저모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 선교를 향한 행보는 올 한해도 쉼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DCEM 2월호 뉴스레터에서는 총재 조용기 목사의 2014년 해외성회 개최 예정지들 중에서 특히 대만의 타이퐁 현,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뉴질랜드의 오크랜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4월 성회 개최지: 대만 타이퐁



타이퐁 현은 중화민국 타이완 섬의 남동부에 위치하는 현이다. 타이퐁 현은 타이완의 동남쪽, 동쪽은 태평양, 서쪽을 평균 해발 2,500m의 중앙 산맥에 면하는 위치에 있다. 면적은 약 3,500km²이며, 대만 전체 면적의 9.78%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의 조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은 평지가 부족하고 험준하며, 또 산호초에 의해 형성된 해양 지형이 그 특징이다. 타이퐁 현은 7족의(브농, 파이 한·르 카이, 아미, 퓨마, 지하, 쿠바란) 원주민 부족이 있다. 종족과 문화 차이가 크며, 원주민 인구 비율이 높은 원주민 문화의 색채가 농후하고, 타이퐁 현 문화 자원은 전 대만에서 우수하다. 타이퐁은 몬순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열대기후형 남부열대성고산기후에 속한다.

6월 성회 개최지: 아르메니아 예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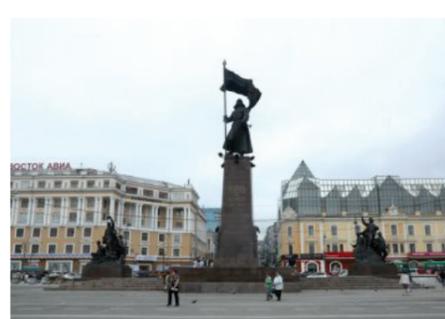
예레반은 BC7세기에 세워졌으며 아르메니아의 수도이다. 아르메니아는 AD301년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아르메니아 정교를 확립한 나라다. 최초의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남부에 있는 나라로서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한 공화국의 하나이다. 면적은 3만km², 인구는 380만 명이다.

301년 아사시드의 트리다테스 3세 때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그 뒤 독립을 유지하였을 뿐, 터키·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1894년 폭동이 일어나자 터키인들은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약 30만 명이나 되는 아르메니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한차례 터키인들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되어 150만 명이나 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희생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끝까지 항거하여 1918년 5월 28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후일 소련구성공화국이 되었다가 1991년 8월 독립을 선언하고, 1992년 3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1992년 2월 21일 수교하였다

9월 성회 개최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의 도시이며, 러시아 극동의 군사기지이고 연해지방의 행정 중심지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시발점이며,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문호이다. 블라디보스톡은 개인사업과 국제 무역, 관광

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국제 심포지움과 학술회의가 자주 열리고 태평양 함대의 모항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해군 함대가 친선 사절로 온다. 주된 산업은 조선업과 포경·계 등 어업, 어류·해산물 가공업, 군항 관련 산업이다. 선박수리, 목재가공, 식료품 공업도 있다. 남동쪽의 나훗카는 제2차 대전 후에 열린 상·어항으로 러시아의 극동을 향하는 제2의 문호이다.

10월 성회 개최지: 뉴질랜드 오크랜드



뉴질랜드는 남서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두 개의 큰 섬(남섬과 북섬) 그리고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나라의 마오리어 명칭인 아오테아로아는 “하얗고 긴 구름의 나라”라는 뜻이다.

면적은 27만 534km², 인구는 4,367,800명(2010년 기준)이다. 태즈먼 해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 뉴질랜드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인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오크랜드는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이자 이 나라의 주요 관문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인 오크랜드는 지형적으로 아주 좁은 모양으로, 다르게 말하면 바다에 완전히 쌓여있는 곳이다. 하얀 백사장이 있는 해변과, 검은 모래 해변이 장관을 이루는 동해안까지 쉽게 갈 수 있는 바다가 어디서나 가깝아서 요트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12절>

2.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하며 삶의 수고로운 짐과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면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항상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갬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주 속이 답답할 때 오히려 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해결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고백하면 그 답답한 일들이 모두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치 않습니다.

3.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외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요사이에는 학교에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친구들의 그룹과 어울리거나 들어가지 않으면 소외당하고 구박을 당합니다. 특히 아직도 이슬람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고 늘 외롭지 않게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앉으나 일어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빈 마음으로 방치하

면 안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 한가운데 우리의 꿈을 그려두고 바라보며 언제나 꿈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늘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4.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러뜨림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때려 눕혀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계시므로 아무리 우리를 때려눕혀도 죽지 않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 사역하는 한국인 이시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곳은 밤낮으로 테러가 일어나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선교하러 나가면 저녁에 살아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에 관한 책을 읽다가 구한말에 감리교 선교사로서 26세 때 조선에 들어온 루비 캔드릭(R. Kendrick)이라는 여성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9개월 만에 질병에 걸려 순교했지만 그녀가 남긴 일기장에는 “내게 일 천 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를 터뜨려서 조선을 위해 죽겠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시온 선교사는 그 글을 읽고 성령으로 감동돼 “너도 아프카니스탄에 가서 그와 같이 죽거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지금도 아프카니스탄에 들어가 살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든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얻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것이 이뤄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면 그 바라봄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기적과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하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보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돼 사람으로 태어나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1.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살다보면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에서 압력을 당해도 질그릇인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그 대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므로 우리는 절대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돌려 진치고 계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옥여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돌려 진쳐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4월 대만 타이퉁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 예정



오는 4월 3일, 4일 대만 타이퉁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동부연합성회 및 교역자세미나’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성회에는 많은 대만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조용기 목사의 방문을 고대하며, 성회를 위해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다. 대만 기독교 지도자들은 순복음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재)순복음선교회 대

만총회(총회장 장한업 목사) 선교사들이 지난달 1월 26일 타이페이에서 모임을 가졌다. 선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대만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아세아성도방향대성회 등을 통해 순복음의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목회하는 교회임을 강조하며,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만의 복음화와 중국 대륙의 선교기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안

정복 장로)은 1월 27일 대만 타이퉁에서 생명천순복음교회(김경숙 선교사) 성전건축과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방과 후 학교 기공예배를 드렸다.

기공예배에 초청된 한상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 이곳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곳의 희망이다. 굿피플이 타이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당부했다.

생명천순복음교회 김경숙 선교사는 “조용기 이영훈 목사님께 감사하다. 아픔조차 표현 못하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 아이들을 건강한 크리스천,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우겠다. 앞으로 새로운 꿈을 아이들과 키워나가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우리교회 교역자 제직·기관 대표들 “목사님 사랑합니다”



“생신축하 합니다. 우리목사님” 2월 14일 아침 CCMM빌딩 11층에서 이영훈 목사와 국장, 기관장, 장로회 임원, 기관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생신을 축하했다. 김광택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축하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는 케이크의 촛불을 끄

고 케이크를 커팅했다. 이어 교회를 대표해 이영훈 목사가 선물을, 교역자를 대표해 한상인 목사가 꽃바구니를, 성도들을 대표해 김창명 장로회장이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등 각 기관 대표들이 축하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는 항상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마음속에 있다가 일로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생각, 꿈, 믿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교회는 당회장이영훈 목사를 중심으로 바로 서야한다. 영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며 축복받으시기를 바란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교회를 성장·발전시키자”고 당부했다.

스승의 생신을 기념해 14일에 영산 조용기 목사들의 제자들인 영목회(회장 이태큰 목사)가 조용기 목사의 생신축하 행사를 가지고 스승에게 사랑과 응원을 전했다. 또한 우리교회 대교구장 출신, 개척한 목회자들로 구성된 영성회(대표회장 정유희 목사)와 우리교회 출신 여교역자들의 모임인 영산회 역시 각각 조용기 목사의 생신 축하 행사를 열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였다.